

현전 <향병일기>의 선본확정과 그 편찬의 경위 및 시기

신 해 진*

- I. 들어가며
- II. 《근시재선생문집》을 통해 본 <향병일기>의 존재 여부
- III. 현전 <향병일기>의 이본 및 그 선본
- IV. 현전 <향병일기> 편찬의 경위와 그 시기
- V.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현전 <향병일기(鄉兵日記)>의 선본 및 편찬의 경위와 시기를 살펴 보고, <향병일기>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현전 <향병일기>는 근시재 김해(金垓)가 직접 쓴 일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향병일기>는 김해가 죽은 지 115년이 지난 1708년에 이르러서야 김해의 증손자가 편찬한 《근시재선생문집》을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전 <향병일기>의 이본은 모두 4종이 있다. 이 중에 선본 파악을 위해 필요한 이본은 안동문화연구소가 공개한 영인본과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양성 사업단장, 전자우편 hjshin@chonnam.ac.kr

필름 자료이다. 이 두 이본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향병일기>의 선본(善本)과 선본(先本)임을 알 수 있다.

우선 두 이본의 공통부분을 보면, 분명하게 <향병일기>는 당시의 서기가 기록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김해가 아님이 명백하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자료는 안동문화연구소의 영인본과 달리 누락하지 않고 원래 있었던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기록, 즉 편찬 시기를 1911년 이후로 추론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편찬 시기를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연려실기술》(1911년 간행)에서 나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전지의 탈초를 통해서도 정확한 편찬시기도 알 수 있다. 김해의 생년월일을 밝히면서 ‘지금으로부터 361년 전’이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향병일기>의 편찬 시기는 1914년인 셈이다.

이처럼, 현전 <향병일기>의 편찬 경위와 그 시기를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안동문화연구소 영인본의 일부 누락은 의도 개입의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병일기>의 저자인 ‘당시의 서기’를 규명하여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향병일기>, <근시재선생문집>, 안동문화연구소 영인본,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 필름, 1914년, 김해.

I. 들어가며

현전 <향병일기(鄉兵日記)>는 임진왜란 당시 창의(倡義)하여 의병장에 추대된 근시재(近始齋) 김해(金垓, 1555~1593)의 의병부대 활동을 기록한 필사본일지이다. 비록 단편적으로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안동, 예안, 의성, 상주, 영주, 봉화 등 이른바 영남 북부지역의 의병활동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전란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군량을 모집하는 과정, 의병장을 선출하고 군사조직 체계를 갖추는 과정, 당교(唐橋) 등지에서 왜적과 전투하는 과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에 처하여 영남 북부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향촌재지사족들의 의식과 대응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것이다.

또한 임진왜란 경주성 전투에서 경주 부윤 박의장(朴毅長)이 이끈 조선군의 최전 무기였던 진천뢰(震天雷)¹⁾의 운용에 대한 기록도 있어 주목되는데, 그 당시 기록 문헌들에서 이 무기의 운용 사례가 쉬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향병일기>에 의하면, 1592년 12월 27일에는 의병대장 김해가 풍산(豊山)에 도착하여 진천뢰를 가져갔으며, 1593년 1월 1일에는 진천뢰를 쏘아 적진을 놀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인 자가 매우 많았음을 순찰사에게 서면보고했으며, 1월 2일에는 당교(唐橋) 전투에서 진천뢰를 쏘아 승리하고 진천뢰를 더 보내주도록 청하였으며, 1월 8일에는 병마사

1) 진천뢰(震天雷)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무기로 조선 선조 때 李長孫이 발명한 것인데, 그 소리와 파괴력으로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격퇴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마살상용(人馬殺傷用) 화약병기이다. 이 무기에 대해, 유성룡이 그의 《징비록(懲毖錄)》에서 “임진년에 왜적이 경주성에 웅거하고 있을 때에 병사 박진이 군사를 거느리고서 적을 공격하였으나 패배하고 귀환했는데, 다음날 밤에 진천뢰를 성 밖 2리쯤에서 쏘았다. 적이 처음에 포성을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홀연히 큰 술 같은 물건이 날아와 적장이 있는 객사의 뜰 가운데 떨어지자, 적이 다 모여 불을 켜 들고 서로 밀치고 굴렀다. 조금 있자 포성이 천지를 뒤흔들듯 발하여 적이 맞아 죽은 자가 30여 명이고 맞지 않은 자도 모두 놀라서 자빠지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였다.

가 다른 곳에 있는 진천뢰에 화약을 쟁여서 보내겠다고 했으며, 1월 16일에는 순찰사에게 진천뢰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화약이 바닥나 수송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2월 24일에는 진천뢰를 쏘아 적진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왜장을 죽였으며, 3월 9일에는 전날 당교를 야습하였을 때 없어서 다시 보내달라는 공문을 만들었으며, 3월 15일에는 병마사가 이전 병마사가 자인현(慈仁縣)에 맡겨두었던 진천뢰 하나에 화약을 쟁여서 실어 보내겠다고 하였는데, 이 사실들은 임진왜란사에서 화약병기를 사용한 구체적 사례들인 것이다. 그리하여 <향병일기>는 1974년 경상북도 시도 유형문화재 64호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귀중한 문헌인 현전 <향병일기>를 김해가 직접 쓴 일기로 알려져 있지만²⁾, 김귀현은 김해가 쓴 것을 후손이 편집한 것으로 추정하였고³⁾, 김해 자신을 3인칭인 ‘대장’으로 적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망 사실도 적혀 있다는 점에서 김해의 순수한 일기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⁴⁾ 이

2) 김세한, 「향병일기 해제」, 『안동문화』 4,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83, 145~147면.

김귀현, 「향병일기」, 『안동문화연구』 창간호, 안동문화연구회, 1986, 191~226면.

최효식, 「안동의 의병 활동」, 『임진왜란기 영남의병 연구』, 국학자료원, 2003, 231~259면.

최효식, 「안동의 의병 활동」,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204~233면. 위의 글을 중복 게재한 글이다.

심수철, 「근시재 김해의 생애와 문학세계」,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이 밖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향병일기>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할 때면 으레 김해가 지은 것으로 간주한다.

3) 김귀현, 위의 글, 225면. “金大將의 手筆을 幕下의 軍官 金兌가 手습하여 本家에 넘긴 것을 그 後孫이 日字別로 編輯한 듯하다. 그것은 日記 中에 곳곳에 『附西行日記』 등이 있음으로 짐작이 가며, 또 그 手습의 과정에 빠졌고, 종이가 남아져서 곳곳에 『缺』의 표시가 있다. 이것은 어떤 데는 한두 字 많은 곳은 文章의 몇 行이 빠져서 解得이 어려운 곳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그 대강은 별로 어기지 않는다.” 김귀현은 글 앞머리에 ‘近始齋 金垓 先生 述’이라 하고서 인용문처럼 언급하였는데, 이는 학적 엄밀성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현전 <향병일기>가 순수하게 김해가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셈이다.

4) 김병륜, 「향병일기: 1592~93년 영남북부 의병들 전투일지」, 『국방일보』, 2008.9.3.

러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 정치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현전 <향병일기>의 이본들을 꼼꼼히 살펴 선본을 확정짓고, 그 편찬 경위와 시기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II. 《근시재선생문집》을 통해 본 <향병일기>의 존재 여부

《근시재선생문집》은 4권 2책의 목판본이다. 김해의 증손자 김석운(金錫胤)이 이보(李篋)의 발문과 조덕린(趙德鄰)의 서문을 받아 1708년 1책으로 수집하고 편차(編次)해 놓은 것을 1783년에 후손인 김돈(金鎔)과 김형(金瑩) 등이 4권 2책으로 재판하고 정범조(丁範祖)의 발문을 받아 간행한 문집이다. 김해가 생전에 쓴 글로 엮은 권1부터 권3까지에도, 김해 사후에 후인들의 추모글로 엮은 권4의 부록에도 <향병일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권4의 부록에 행장(行狀)·묘갈명(墓碣銘)·묘지명(墓誌銘)·가장(家狀)·전(傳)·용사기사(龍蛇記事)·제문(祭文)·만사(輓詞)·서근시재김선생유고후(書近始齋金先生遺稿後) 등이 수록되어 있는바, 이 기록들을 통해 어느 시기에 이르러 <향병일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해의 장남 김광계(金光繼, 1580~1646)가 쓴 ‘가장(家狀)’에는 향병일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김해의 종형 김기(金圻, 1547~1603, 金富仁의 4자)가 쓴 <전(傳)>에도 향병일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만 1595년 홍문관 수찬에 증직된 사실을 밝혀 놓았으며, 김해의 종제 김령(金垚, 1577~1641, 金富倫의 장남)이 지은 <용사기사(龍蛇記事)>에도 역시 향병일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의 <묘지명>에는 김해의 손자 김면(金甬, 1611~1688, 김해의 3자인 金光輔의 장남)의 다음 인용문과 같은 부락으로 인하여 1686년에 묘지명을 지은 계기를 밝히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향병일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김면의 고모가 이현일의 어머니였으니, 김면과 이현일은 고종사촌과 외사촌 사이였다.

“우리 조부의 덕망과 선행과 행의로 당연히 묘지명이 있어야 할 것이네. 처음에는 국난이 평정되지 못하여 장례를 치른 직후 묘지명을 짓지 못하고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다가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네. 그러나 이렇게 흐지부지하다가 유명(幽明) 간에 죄를 지을 것 같으므로 속히 묘지명을 지어 유택에 넣어 후손들에게 각성을 하게 하려고 하네. 그러나 세대가 오래되어 우리 조부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 적으므로 묘지명을 부탁할 사람이 없네. 오직 그대가 가정에서 전해온 말 중에서 반드시 우리 조부의 행적에 대해 언급할 일이 있을 것이니 나를 위하여 묘지명을 지어주기 바라네.”⁵⁾

그리고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묘갈명>에도 향병일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한편, 이보(李篋, 1629~1710)가 <서근시재김선생유고후(書近始齋金先生遺稿後)>에서 “<향병일기> 2책이 있는데 1책은 의병을 일으킬 때 기록한 것이며 1책은 남쪽 지방을 정벌할 때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남쪽 지방을 정벌할 때 기록한 일기도 초상이 날 때 잃어버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대충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⁶⁾고 언급하였으며, 조덕린(趙德鄰, 1658~1737)이 1708년에 지은 서문에는 동문수학했던 김석운(金錫胤, 1661~1710)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며 다음처럼 말했던 사실을 밝혀놓은 데서도 향병일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 선조의 유집이네. 선조께서는 젊었을 때 학문에 뜻을 두어 월천(月川) 조목(趙穆) 선생이 생존해 계실 때 그곳을 왕래하면서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고, 또 그 당시 여러 군자들과 들은 것을 토론하였으니 바로 서(書)나 소(疏) 그리고 품번(稟辨)에 실려 있네. 또 임진왜란을 당하여 의병을 모집하여 적을 토벌하였는데 책략과 목을 벤 것과 사로잡은 것을 자세히 실어 놓았으니, <향병일기>와 <서정록>이 그것이네. 그러나 난리를 겪는 동안 모두 불에 타거나 손상되어 수집을 하지 못하였고, 다행히 남아있는 것마저 사

5) 주승택 외 5인 역, 『국역 오천세고(하)』(한국국학진흥원, 2005)의 156면. 번역문은 김면과 이현일이 내외형제 관계임을 고려하여 약간 손질하였다.

6) 위의 책, 182면.

라져 선조의 행적을 증명하지 못할까 큰 걱정이네. 그대가 서문을 지어서 후세에 전해주지 않겠는가?”⁷⁾

김석윤은 김해의 증손자⁸⁾인데, 그의 주도로 《근시재선생문집》이 편차되던 1708년 어름의 서문과 발문에서 처음으로 <향병일기>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돈(金瑩, 1714~1783)⁹⁾과 종제 김형(金瑩, 1737~1813)¹⁰⁾ 등이 1783년 경에 김석윤이 1708년 1책으로 수집하고 편차해 놓은 것을 4권 2책으로 다시 편차하여 간행하면서 정범조(丁範祖, 1723~1801)로부터 받은 발문에는 향병일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반해, 1779년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이 지은 <행장(行狀)>에는 <향병일기>와 <서행일기>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상정은 김돈이 종제 김형을 자신에게 보내어 “선조의 사적이 겨우 묘지명과 전기 약간이 있으나 행장을 짓지 못하였으니 어찌 한 말씀 기록해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사실을 밝혀 놓고는 <향병일기>와 <서행일기>에 대해 언급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해가 죽은 지 115년이 지난 1708년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증손자 김석윤에 의해, 김해 사후 186년이 된 1779년 김해의 6세손인 김돈과 김형에 의해 향병일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편차하고 간행한 문집에는 <향병일기>가 수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해의 아들과 손자 대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던 <향병일기>가 증손자 대에 이르러서 언급되는 것이 석연치 않지만, 일단 <향병일기>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향병일기>가 바로 현전 <향병일기>인지, 그 여부는 좀 더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보의 글에서는 ‘남쪽 지방을 정벌할 때 기록

7) 위의 책, 24~25면.

8) 김해→3자 김광보→2자 金怡→4자 김석윤

9) 김해→1자 김광계→1자 金謙→1자 金純義→1자 金岱→1자 金智元→1자 김돈

10) 김해→1자 김광계→1자 金謙→1자 金純義→1자 金岱→2자 金道元→1자 김형

한 일기도 초상이 날 때 잃어버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대충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¹¹⁾ 하였고, 조덕린의 글에서는 김석윤이 ‘임진왜란을 당하여 의병을 모집하여 적을 토벌하였는데 책략과 목을 벤 것과 사로잡은 것을 자세히 실어 놓았으니 <향병일기>와 <서정록>이 그것이나, 난리를 겪는 동안 모두 불에 타거나 손상되어 수집을 하지 못하였고, 다행히 남아있는 것마저 사라져 선조의 행적을 증명하지 못할까 큰 걱정이네.’¹²⁾ 하였으며, 이상정의 글에서는 ‘<서행일기>와 <향병일기>를 기록하여 그 용병(用兵)과 적을 막는 방법, 창외(倡義)와 사절(死節)의 자취를 대략 기록하였다. 이것도 모두 병화에 소실되고 일기도 그 절반이 유실되었으니 애석한 일이다.’¹³⁾ 하였기 때문이다. 환언하자면, <향병일기>는 김해 사후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존재가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708년 어름에서야 비로소 언급되기 시작하지만 대충 기록되었다거나, 불에 타 손상되어 수집하지 못했다거나, 그 절반이 유실되었다거나 하는 등 있었다손 치더라도 완전치 못한 문헌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Ⅲ. 현전 <향병일기>의 이본 및 그 선본

현전 <향병일기>는 모두 4종이 있다. 첫째,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가 영인한 <향병일기>이다. 이것은 김세한(金世漢)이 간략한 해제를 덧붙여서 1983년에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의 『안동문화』 제4권을 통하여 처음으로 공개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당시 김해의 주손(胄孫) 김준식(金俊植)이 제공한 것이라 한다.¹⁴⁾ 그리고 김귀현(金龜鉉)은 1986년 이 자료를 저본으로 삼아 번역하였고, 안동문화연구회의 『안동문화연구』 창간호에 그 번역문과

11) 주승택 외 5인 역, 앞의 책, 182면.

12) 위의 책, 25면.

13) 위의 책, 149~150면.

14) 김세한, 앞의 글, 147면.

함께 간략한 해제¹⁵⁾를 덧붙여서 실었다.



<그림 1>

둘째,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마이크로필름 <향병일기>(청구기호: MF A지수350)이다. 광산김씨 예안파는 1970년 안동댐 공사로 500년 세거지가 수몰되자, 옛 마을의 뒷산에 새로 부지를 조성하여 ‘군자리’라 명명하고 수몰지에 흩어져 있던 묘우, 종택, 누정 등 건축물들을 집단적으로 옮겨 짓는 과정에 다락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고문서와 전적 1천여 점이 나왔고, 그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의 문서가 100건이 넘었다. 이 고문서와 전적들의 일부를 1980년에 김택진(金澤鎭)은 학계에 공개한 바 있고, 1983년에는 광산김씨 예안파 유물전시관으로서 송원각(崇遠閣)을 지어 보존 관리해 오고 있다. <향병일기>는 1989년 국사편찬위원회의 지방 사료 조사 활동에 의하여 학계에 알려졌는데, 국사편찬위원회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찍고 활자화하여 2000년에야 광산김씨 예안파 가문의 다른 일기 자료들과 함께 한국사료총서(韓國史料叢書) 제43권으로 간행한바, 그 상권이 『향병일기·매원일기(鄉兵日記·梅園日記)』이다. 그런데 마이크로필름 <향병일기>의 표제 뒷면에 있는 부전지(附箋紙)는 활자화되지 않았다. 소장자 김택진은 『안동문화』 제4권의 수록 자료를 제공한 김준식의 아버지이다.

이 두 이본의 실물을 소개하는 것이 <그림 1>이다. 경상북도문화재 사이트에서 구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¹⁶⁾, 지금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사이트에서 내린 자료이기는 하나 후조당 유물(유형문화재 제64호, 1974.12.10. 지정) 가운데 <향병일기>를 소개하던 사진이다. 소유자는 김택진으로 되어 있었다. <그림 1>의 왼쪽 책은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가 영인한 자료와

15) 김귀현, 앞의 글, 221~226면.

16) <http://www.chis.go.kr/daekwan/WebContent/popsrc/07/64.html>

동일하며, 오른쪽 책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은 것과 동일하다. 이로써, 첫째와 둘째의 자료는 모두가 광산김씨 예안과 문중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향병일기약(鄉兵日記畧)>이다. 이것은 김세한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저본으로 삼아 축약한 것이다.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진 경우는 거의 없고, ‘궁산(窮山)’을 ‘심산(深山)’으로 대체한 것처럼 어구를 바꾼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이본은 1545년 을사사화(乙巳土禍) 때 화를 당한 인물들의 전기를 모아 엮은 <을사전문록(乙巳傳聞錄)>이 먼저 실리고, 그 뒤에 8장 분량으로 덧붙여진 형태이다. 표제는 《을사전문록》(청구기호: 920 을61)으로 되어 있다.

넷째, 심재덕 소장본 <향병일기>이다. 이것은 심수철이 자신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소개한 것이다.¹⁷⁾ 곧, “심재덕 소장본으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받았고¹⁸⁾, 일반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¹⁹⁾ … 다소간의 문자 출입은 있으나²⁰⁾ 내용은 大同小異하다. 글씨의 필체는 … 行草書이다. 필체와 마멸

-
- 17) 심수철, 앞의 논문, 2면. 근시제 김해를 <향병일기>의 저자로 파악하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 글에서 자연스레 밝혀질 것이다.
 - 18) 안동시 공고 제2014-143호(경상북도 지정문화재 지정예고)를 통해 2014.1.29.~2014.2.27까지 공고하여 유형문화재로 지정됨.
 - 19) 심재덕씨와 연락이 닿았는데,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지만 현지점에서 공개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하였음. 그렇지만 심재덕씨가 <향병일기>의 첫대목 1면과 마지막 3면을 보내주어 일부는 확인할 수 있었고, 자료 전문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 자료의 전모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 20) 심수철, 앞의 논문, 78~79면 재인용. <향병일기>의 1592년 8월 9일자를 보면, 안동 문화연구소 영인본과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에는 “前縣監李愈, 前縣令權春蘭, 前翰林金涌及金允明·金允思·李亨男會, 裴龍吉·李應龜·辛敬立·權益亨·琴夢駟·權終允·權泰一·權德成·權重光, 會于臨河縣東者仕里松亭, 相議舉兵, 以裴龍吉·金涌爲召募有司.”로 되었고, 심재덕 소장본에는 ““前縣監李愈, 前縣令權春蘭, 前翰林金涌及金允明·金允思·李亨男會, 裴龍吉·李應龜·辛敬立·權益亨·琴夢駟·權終允·權泰一·權德成·權重光, 會于臨河縣東者仕里松亭, 相與謀曰: ‘日馭播越龍灣, 腥塵汚穢宗祏, 通哉通哉. 今日吾儕不死, 與犬羊同戴一天, 更舉何顏? 親上死長之義, 盖嘗聞之而講之熟矣, 身死何惜? 但鄉閭軍丁, 屬盡官簿, 白面空舉, 徒奮何爲? 國事至此, 固非臣子安坐之時. 今日之事, 爲國一死耳, 其成敗強弱, 有不暇計也.

상태, 문자의 출입 상태 등으로 봤을 때 심재덕 소장본이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소장자가 머지않아 공개할 예정이라 하나 현재로서는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전 <향병일기> 이본들의 실상이 이러하다면, 그 선본(善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동문화연구소가 공개한 영인본과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대상으로 삼으면 될 것이다. 두 이본은 모두 서문과 발문 없이 1592년 4월 14일 왜적에 의한 동래성 침공 소식으로부터 1593년 6월 19일 김해가 계림전투에서 사망하기까지 의병활동 날짜별로 기록하였는데 글자 한 자도 다르지 않으며, 맨 끝부분에 있는 ‘위의 몇 가지 조목들이 모두 가승에 실려 있으나 일기에는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에 덧붙인다.(上數條, 並家乘所載, 而見漏於日記中, 故追附于此.)’는 후기(後記)까지도 똑같다. 다만, 안동문화연구소 영인본이 1면의 맨 끝 2글자와 21면의 맨 끝 1글자가 밀려 필사했었는데,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자료에 따라 다시 맞추어져 똑 같게 된 것이 다른 점이라면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이는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대본으로 삼아 다시 필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자료가 선본(先本)인 셈이다.

凡我同志之人, 同心戮力, 起義討賊, 以復君讐, 於萬一, 可乎? 咸曰: ‘諾.’ 左右着署而誓曰: ‘不能忘身而討賊者, …缺…’ 以裴龍吉·金涌爲召募有司, 以義字爲自許之嫌, 獨以鄉兵之號, 盟而罷歸.(‘임금의 수레가 龍灣으로 피난을 떠나고 피비린내가 종묘 사직을 더럽혔으니 원통하고 원통하다.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개와 양 같은 무리와 한 하늘 아래 살아간다면 다시 어찌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뒷사람을 친애하고 어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의리에 대해서는 일찍이 듣고 익숙히 강론하였으니 이 한 몸 죽는 것이 어찌 아깝겠는가? 다만 고을의 군정은 죄다 관청의 장부에 들어갔으니 백면서생이 빈주먹으로 떨쳐 일어난들 어찌하겠는가? 그러나 나랏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신화와 자식이 되어 편안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할 일은 임금을 위하여 한 번 죽을 뿐이고 성패와 강약은 따질 겨를이 없다. 우리 동지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여 나라의 원수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러자 모두들 ‘옳다.’라고 하였다. 좌우의 사람들이 더불어 서명하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몸을 잊고 적을 토벌하지 않는다면 …(결락)…’ 배용길과 김용을 召募有司로 삼고, ‘義’자는 스스로 빼기는 혐의가 있으므로 다만 ‘鄉兵’이라 부르기로 하고 맹세한 뒤 파하고 돌아갔다.”라 되어 있다. 이러한 출입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바, 자료가 조속히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동문화연구소 영인본은 35장본 69면인 반면,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자료는 거기에다 부전지(附箋紙)와 첨부자료 3면이 더 있다. 곧, 안동문화연구소 영인본은 의도적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자료의 중요 대목이 누락되었다. 결국, 이는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자료가 선본(善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 누락된 자료가 지니는 중요성은 다음 장의 논의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로써, 현전 <향병일기>의 선본(先本)과 선본(善本)은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IV. 현전 <향병일기> 편찬의 경위와 그 시기

현전 <향병일기>의 선본(善本)은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자료임은 앞의 장에서 살폈다. 그러므로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대상으로 삼아 편찬 경위와 시기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 편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부전지(附箋紙)
- ② 萬曆壬辰四月十四日癸卯。~ 癸巳五月七日庚申。○右當時書記所錄
- ③ 五月領兵，在密陽。(右梅園錄)
- ④ 聞晉陽受圍，治兵至晉州(缺)大將令領兵救梁山，因往(缺)。此後，則追賊南下，至於慶州，與李山輝合勢，大破鷄林之賊。而江左義將，皆受府君節制時，有南下日記，而失於喪亂中，設伏龍威時，有西征錄及別錄，而並皆失之。六月十九日。大將，卒于慶州陣中。(臨卒，有詩曰：“百年存社計，六月着戎衣。爲國身先死，思親魂獨歸。”時幕下金公兌等，自寢疾至易簣，小不離側，府君遺命，多少記籍，而皆失之，祇存此詩，至今傳誦。)師散而歸。(右果軒錄)
- ⑤ 上數條，並家乘所載，而見漏於日記中，故追附于此。
- ⑥ 丙子夏，有凝州之役，得見羽溪李涵齋希胤所撰傳習錄，~ 其悲憤慷慨之義，從可像想，而但不載於家乘及鄉兵日記，故隨聞隨錄，以備他日採擇焉。

⑦ 出燃藜記述(完山 李肯翊所編)

위의 편차 가운데 ①은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자료에만 있는 것이며, ②에서 ⑤까지는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가 공개한 영인 자료에도 한글자 어김없이 그대로 있는 공통부분이며, ⑥과 ⑦은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자료에만 있는 것이다.

우선, 공통부분인 ②에서 ⑤까지를 살펴보면, 총 69면 가운데 ②는 67면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분명히 협주를 통해 ‘바로 앞까지는 당시 서기가 기록한 것이다.(右當時書記所錄.)’라고 밝히고 있다.²¹⁾ 그렇다면 <향병일기>는 현재로서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을 김해와 함께한 ‘서기’가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찌 김해가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김해를 기록자로 보는 사람들 중에는 곧이 김해가 기록한 자료에 당시 서기가 가필한 것으로 추론하기도 하는데, 그 근거로 <서행일기(西行日記)>를 들지만 이것 역시 김해 자신을 3인칭인 ‘대장’²²⁾으로 적고 있으므로 근거로서 미약하다. 그리고 ③과 ④는 김해의 후손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를 알려주는 것이 또한 협주이다. ③은 매원(梅園)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매원은 바로 김해의 아들 김광계(金光繼, 1580~1646)의 호이다. 또 ④는 과현(果軒)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과현은 바로 김광계의 손자 김순의(金純義, 1645~1714)이니 곧 김해의 증손자이다. ⑤는 ③과 ④가 김해의 기록이 아니지만 이 대목에 삽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다. 곧, 전해 내려오는 가승(家乘)에는 실려 있으나²³⁾ 일기에는 누락

21)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심재덕씨 소장본 <향병일기>의 첫대목 1면과 마지막 대목 3면을 살펴본바, 바로 ②에 해당하는 문헌임. 그리고 4면만을 살펴도 중요 대목이 누락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헌이 공개되면 <향병일기>의 저자 추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2) 1592년 12월 28일. “<西行日記>附, ‘伏兵將李選忠處, 親聞賊奇, 大將趨曉發行, 路次見右副將馳報, 軍威奇大立等, 斬倭頭, 奪倭物, 上送云...’”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다.

23) 매현의 기록은 <先考通仕郎行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 贈承議郎弘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府君家狀>의 “癸巳五月, 端人以疾歿于家. 時公領兵在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덧붙였다는 것이다.

아무튼, 현전 <향병일기>는 안동문화연구소의 영인 자료처럼 ②에서 ⑤까지만 있다면 김순의의 생몰 연간을 고려하건대 그래도 18세기 문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안동문화연구소의 영인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보고 다시 필사한 것이기 때문에 18세기 문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⑥은, ③과 ④가 ‘향병일기’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가승’에는 전해오기 때문에 실었다고 한 반면, ‘가승’과 ‘향병일기’에 모두 실려 있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들은 것이라서 훗날에 채택되기를 바라며 덧붙인 기록이다. 곧 ‘다만 가승 및 향병일기에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대로 기록하여서 훗날의 채택에 대비한다.(但不載於家乘及鄉兵日記, 故隨聞隨錄, 以備他日採擇焉.)’고 한 데서 확인된다. 가장 문제적인 기록이다. 왜냐하면, 이희운(李希胤)이 확인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이희운은 우계이씨(羽溪李氏)로 되어 있는바, 『우계이씨대동보』(우계이씨중앙회수회, 1990)를 확인해도 등재되어 있지 않고, 그 문중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알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또 그가 지었다는 ‘전습록(傳習錄)’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주(凝州)’도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기에는 난제이기 때문이다.

⑦은 이극익(李肯翊, 1736~1806)이 편찬한 《연려실기술(練藝室記述)》에서 나오는 기록이다. 곧, 《연려실기술》 권17 ‘영남의병(嶺南義兵)’에 실린 기록으로 한 글자도 어긋남이 없다. 이러한 기록은 《연려실기술》이 간행된 데서 기인한 것인데, 《연려실기술》은 1911년 광문회(光文會)에서 도합 34권으로, 1913년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에서 도합 59권으로 각각 간행되었다. 그렇다면 현전 <향병일기>는 1911년 이후에 편찬되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²⁴⁾

密陽.”을 가리키나, 과현의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24) 《연려실기술》 별집을 편찬할 때 인용한 책들 중에는 정조 시대 이후에 간행한 신경준(申景濬)의 《여암집(旅菴集)》이나, 《일득록(日得錄)》(정조 때 신하들이 정조의 어록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향병일기약(鄉兵日記畧)>이 <을사전문록(乙巳傳聞錄)>과 함께 묶인 연유이다. <을사전문록>은 ‘유분록(幽憤錄)’이라고도 하는데, 이 <을사전문록>만 《대동야승(大東野乘)》 권12에 수록되어 있고, <향병일기>는 함께 실려 있지 않다. 그런데 《대동야승》은 조선 초기와 중기의 잡록들을 모은 것으로 72권 72책이 전해 오던 것을 1909년과 1911년 사이에 조선고서간행회에서 13책으로 출판하였다. 결국,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을사전문록》은 적어도 1911년 이후 어느 시기인지 알 수 없으나 《대동야승》에 수록된 <을사전문록>과 <향병일기>가 따로 있던 문헌을 필사하여 함께 묶은 것이라 하겠다. 그렇게 묶고 난 후에 <향병일기>라는 제목 밑에다 ‘김해 저(金垓著)’라고 표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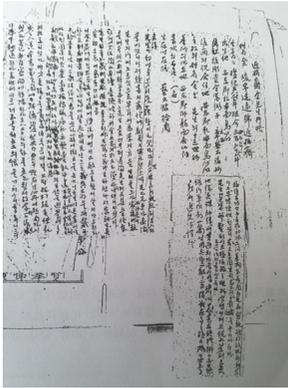
이로써, 현전 <향병일기>의 편찬 경위를 요약해 보자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임진왜란 당시에 김해와 함께 의병 활동을 했던 ‘서기’가 기록했던 문건을 입수하였고, 그 후에 김해의 아들 김광개, 증손자 김순의가 기록한 가승 자료를 덧붙여 김해가 임종하기까지 활약한 의병활동에 대한 기록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비전승 자료라 할 수 있는 이희운의 언급을 훗날에 채택되기 바라면서 보충하였고, 《연려실기술》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까지 보충하였던 것이다.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 국난에 처했던 당시 의기를 떨쳤던 김해의 의병 활동에 대한 기록은 훼손될 여지없이 확고해졌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전 <향병일기>를 김해가 직접 썼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제, ⑦에서 살핀 <향병일기>의 편찬시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긴요한 자료가 ①의 부전지인바, 바로 <그림 2>이다. 이를 탈초(脫草)해 보면, 근시재 김해의 행략(行略)과 사적(事蹟)²⁵⁾이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행략’을

을 편집한 책으로 1787년 간행)이 있음을 고려하면, 《연려실기술》은 1787년 이후에 완성되었다고 보겠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된 것은 적어도 광문회가 1911년에 간행한 이후일 것이다.

25) 사적은 이 글의 부록으로 첨부하기로 하는데, 이상정의 행장을 요약한 글이라 할 수 있음.

탈초하여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성명은 김해, 자는 달원, 호는 근시재이다.
 생년월일은 단기 3886년, 지금으로부터 361년 전이다.
 출생지는 안동군 예안면 오천동이다.
 후조당 김부필의 아들이며, 문안공의 후손이다.
 후예의 거주지는 안동면 예안면 오천동이다.
 주손의 성명은 김공 선생의 13세손이다.
 묘소의 소재지는 안동면 와룡면 거인동이다.
 서원의 유무 : 없다.
 살아있을 때의 관직은 예문관 검열이다.²⁶⁾

<그림 2>

이 자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김해의 생년월일을 밝히면서 ‘지금으로부터 361년 전(距今三百六十一年)이다.’라고 한 점이다. 김해의 생년인 단기 3886년은 바로 1553년이니, 지금은 거기에 361년을 더하면 되는 데 바로 1914년인 셈이다. 이로써, 현전 <향병일기>는 1914년에 편찬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전 <향병일기>가 1914년에 편찬된 것이라면 《연려실기술》의 자료가 인용되어 수록될 수 있었던 것과, 이화여자대학교 도

26) <近始齋金先生行略>에 대해 탈초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姓名金垓, 字達遠, 號近始齋。
 生年月日, 檀紀三八八六年, 距今三百六十一年(四百年)。
 出生地, 安東郡 禮安面 烏川洞。
 後彫堂金富弼子, 文安(章榮, 삭제표시)公 後孫。
 後裔의 設居住地, 安東郡 禮安面 烏川洞。
 主孫의 姓名, 金公先生의 十三世孫。
 墓所의 所在地, 安東郡 臥龍面 居仁洞。
 書院의 有無, (無)。
 生存時官職, 藝文館檢閱。

서관 소장본 《을사전문록》에 <을사전문록>과 <향병일기약>이 함께 묶일 수 있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한편, 이처럼 현전 <향병일기>의 편찬 경위와 그 시기를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영인본의 자료 누락(①⑥⑦)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V. 나가며

현전 <향병일기>는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에 처하여 영남 북부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향촌재지사족들의 의식과 대응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근시재 김해의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현전 <향병일기>에 대해 김해가 직접 쓴 것이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이 이 글을 통해 드러났다. 곧, 김해의 의병활동을 기리고자 광산김씨 예안파 문중에서 편찬한 것임이 확인되었고, 또한 부전지(附箋紙)를 탈초함으로써 그 편찬시기도 1914년임이 확인되었으며, 그에 따라 편찬 경위도 아울러 규명되었다.

그렇다면 이 일기를 탈초하고 활자화하여 2000년에 『향병일기·매원일기』를 간행하면서 ‘간행사’와 ‘범례’에 <향병일기>를 김해가 직접 쓴 것으로 안내한 국사편찬위원회는 큰 오류를 범한 것으로 잘못된 길라잡이 노릇을 하였으니, 그 공신력을 고려하건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해서 <향병일기>만이 아니라 다른 문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김해의 의병활동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되어야 마땅한데, 현전 <향방일기>와 같은 방식의 자료 구축은 아마도 한 일합방에 따른 일제 초기의 시대적 상황에 있어서 임진왜란 당시 의기를 떨쳤던 김해의 의병활동에 대한 기록을 집적하고자 열망했던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현전 <향병일기>의 대부분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의

서기'를 규명해야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보다 더 제고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재덕 소장본이 조속히 공개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14년 4월 30일(수) 에 투고 완료되어
2014년 5월 22일(목) 부터 6월 11일(수) 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4년 6월 16일(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국가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향병일기>(청구기호: MF A지수350)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영인본 <향병일기>(『안동문화』 4 영인본)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을사전문록》(청구기호: 920 을61)

김귀현, 「향병일기」, 『안동문화연구』 창간호, 안동문화연구회, 1986, 191~226면.

김병륜, 「향병일기: 1592~93년 영남북부 의병들 전투일지」, 『국방일보』, 2008.9.3.

김세한, 「향병일기 해제」, 『안동문화』 4,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3, 145~147면.

김종권 역주, 류성룡 저, 『징비록』, 명문당, 1987.

심수철, 「근시재 김해의 생애와 문학세계」,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주승택 외 5인 역, 『국역 오천세고』(하), 한국국학진흥원, 2005. 24~25면, 149~150면, 156면, 182면.

최효식, 「안동의 의병 활동」, 『임진왜란기 영남의병 연구』, 국학자료원, 2003, 231~259면.

부록

부전지의 <사적>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영리하고 지혜로움이 보통의 아이들과 달랐고, 조금 자라서는 개연히 고인(古人)의 학문에 뜻이 있어 독서하며 이치를 궁구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쓰고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선생의 부친 형제가 퇴도(退陶 : 이황의 호)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기 때문에 젊은 시절 학문하는 방도를 들어 가정과 향당(鄉黨)에서 가르침을 배우셨으며, 학봉(鶴峯)과 서애(西厓) 두 선생과 함께 퇴계선생의 문집을 수정하셨고 또 퇴계연보의 편차(編次)를 지어 문충공(文忠公) 김성일로부터 사문(斯文)이 실추되지 않았다는 평을 들었다.

선생이 38세 때인 선조(宣祖) 임진년(1593)에 왜란을 당하여 임금이 의주로 파천해서 종묘사직과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자, 선생은 마음속에 깊이 사무쳐 눈물을 흘리며 “맹세코 왜적들과는 함께 살지 않겠다.” 하시고 여러 고을들을 규합하시니, 원근의 인민이 메아리처럼 호응하여 선생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했을 때, 학봉선생이 삼남招諭使(三南招諭使)로서 별명(別命)을 받아 온 도에 격문을 보냈는데, 선생이 답서에 이르기를 “국운이 막혀서 오랑캐가 창궐하자 종묘사직이 전란에 휩싸이고 임금께서 서쪽으로 파천하셨으니, 하늘과 땅에 굳게 맹세컨대 이 왜적과는 함께 살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이윽고 예천의 송구천(松丘村)에 이르러서 적과 대치하여 왜적의 머리를 베어서 순찰사 진영에 많이 올려보냈다.

때마침 선달 그림날이 되어서 시를 읊었으니, “외로운 등불 가물거리는 객사엔 갑옷 차고(孤燈旅舍鐵衣寒), 사람들 오늘밤 지나면 한 해가 저문다 하네(人道今宵歲已闌). 하룻밤 사이 양귀밑머리에 허연털 더하겠지만(一日能添雙鬢白), 백년이 지나도 오직 일편단심뿐일러라(百年惟有寸心丹).”는 시구가 있었다.

계사년(1593) 5월에는 밀양으로 진을 옮겼지만 부인 이씨의 부음을 듣고

잠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하루 뒤에 다시 진중으로 서둘러 되돌아갔는데, 경주에 이르러 불행히도 제갈량(諸葛亮)이 병사했던 오장원(五丈原)의 한스 러움을 남기니 향년 39세였다.

죽음에 임하여 시를 남겼으니, “머나먼 앞날까지 사직 보존코자(百年存社計), 무더운 유월에도 갑옷 입었거늘(六月着戎衣), 나라 위해 몸이 먼저 죽으니(爲國身先死), 아버이 찾아 닛은 홀로 가누나(思親魂獨歸).”고 하였으니, 그 임금을 사랑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충분의기와 비분강개의 뜻은 죽히 지사(志士)의 천년토록 사무치는 눈물을 느끼게 된다.

선생은 타고난 자질이 탁월하고 그 학문이 융성하여 태극음양지변(太極陰陽之辨)과 심성이기지설(心性理氣之說)로부터 천문(天文)·지지(地誌)·병법(兵法)·음률(音律)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음이 없으시니, 저서로는 살펴서 분별하기 어려운 것과 구익록(求益錄)이 있는데, 행군수지(行軍須知) 1편은 그 병사를 부리고 왜적을 막는 방법과, 의병을 일으키고 전장에서 죽은 일의 흔적이 대략 갖추어졌다. 일기는 그 절반이 유실되었으니 애석한 일이다.

事蹟

先生이 幼時로부터 岐嶷함이 凡兒와 다르섯고, 稍長에 慨然히 古人의 學에 뜻이 이서 讀書와 窮理에 刻苦不懈하였으며, 先公兄弟가 退陶先生의 門에 노르심으로 早年에 爲學의 方을 어더(삭제표시) 들으사 家庭과 鄉黨에서 教를 배우섯스며, 鶴峯·西厓 二先生으로 더부러 退陶先生의 文集을 修整하섯고, 또 陶山年譜를 撰次하서 金文忠公의 斯文不墜타 하난 評이 이섯다.

先生이 三十八歲에 壬辰倭亂을(삭제표시) 宣祖壬辰에 島夷의 亂을(삭제표시) 옆의 행에 표기) 當하야 大駕가 義州로 輒遷하서 宗社生靈이 塗炭에 빠짐으로, 先生이 感涕泣에 “맹서코 敵으로 함기 살지 안으리라.” 하시고 列郡을 糾合하사 遠近인민이 響應하여 先生으로 義兵大將을 推戴한 本時에, 鶴峯先生이 三南招諭 別命을 맞아 一路에 檄文을 옮기니, 先生이 答書에 갈아사되 “國運이 否塞 蠻獠猖獗 廟社兵燹 蠻馭西遷 □民之□□□(삭제표시) 誓心

天地, 不與此敵(삭제표시 옆행 작은 글씨로 표기)俱生.”云, 因備陣于醴泉松丘村하사 賊□□相對하야(삭제표시) 到醴泉松丘村□□(삭제표시)에서 賊과 相對하야 倭敵의 首級을 巡營에 多數獻送히였다.

씩맞춤 除日을 當하야 詩를 읊과 같오대, “孤燈旅舍鐵衣寒, 人道今宵歲已闌. 一日能添雙鬢白, 百年惟有寸心丹.”이란 句가 이섯다.

癸巳五月 密陽에 移陳하야 夫人李氏의 訃를 듯고 暫時故家 一(옆에 작게 1자)日後 다시 陣中馳還하사 慶州에 이르러 不幸히 五丈의 恨을 기치시니 享年이 三十 (결락)。

臨絶有詩曰: “百年存社計, 六月着戎衣. 爲國身先死, 思親魂獨歸.”라 하섯스니, 그 忠憤慷慨(뒷 문장과 바꾸라는 표시)한 뜻이 愛君憂國 足히 志士의 千載感淚(옆에 작은글씨로 표기)을 느끼게 되다.

先生이 天姿 탁월하고 그 學問이 융성하사(옆줄 작은 글씨로 표기) 太極陰陽之변과 심성이기之說로부터 天文·地誌·兵謀·師律에 貫通치 안음이 업스시리 著書有難稽辨과 求益錄, 行軍須知一篇, 其用兵禦敵之方, 倡義死事之蹟, 大略具焉. 日記則逸其半, 惜哉.

Abstract

Decide on The Best Version of Extant <Hyangbyeong Ilgi (郷兵日記)> and Its Compilation Circumstances and Period

Shin, Hae-jin*

This paper sought to examine the best version of the extant <Hyangbyeong Ilgi(郷兵日記)> and the circumstances to the compilation thereof, and to present the necessity for reconsidering <Hyangbyeong Ilgi>. <Hyangbyeong Ilgi> is known to have been written by Kim Hae(金垓) with the pen name of Geunsijae(近始齋). But <Hyangbyeong Ilgi> was made to be known to the world through 《Geunsijaeseonsaengmunjip(近始齋先生文集, Collection of Kim Hae's Writings)》 written by his great-grandson in 1708, 115 years after Kim Hae died, although the diary has yet to be verified. There are four extant versions of <Hyangbyeong Ilgi>. Of them, there are two copies of the diary necessar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best version thereof, namely, the photocopy version disclosed by Ando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and the microfilm version of Korean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These two transcripts were compared, revealing that the latter is the best and earlier version of <Hyangbyeong Ilgi>.

Judging from the two transcripts, it is clear that <Hyangbyeong Ilgi> was written by the then scribe. This suggests that the author is not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im Hae. And, the said microfilm version, unlike the said photocopy version, shows the full text without omissions, but contains contents whose compilation time is presumed as after 1911. Compilation time can be presumed because 《Yeollyeosilgisul(練藜室記述)》(published in 1911) contained the description of the diary. The tag attached to the diary enables the knowledge of the exact compilation time, because it revealed Kim Hae's date of birth, mentioning "361 years ago before now." This means that the compilation time of <Hyangbyeong Ilgi> is 1914. As such, In estimating the circumstances to the compilation of extant <Hyangbyeong Ilgi>, and its time, the said photocopy version has missed some part of the diary, triggering serious problems, regardless of whether such deletion was purposely done. Thus, the historical verification of <Hyangbyeong Ilgi> can be furthered only by identifying the author of <Hyangbyeong Ilgi>, namely, the then scribe.

Key-Word : <Hyangbyeong Ilgi(鄉兵日記)>, 《Geunsijaeseonsaengmunjip(近始齋先生文集, Collection of Kim Hae's Writings)》, the photocopy version disclosed by Ando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the microfilm version of Korean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1914, Kim Hae(金垓)